



#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16호 2022년 12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읽다 죽어도 멋져 보일 책을 항상 읽으라.

Always read stuff that will make you look good if you die in the middle of it.

- P. J. 오루크

## ◆ 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 대출 및 반납

2권 30일

※ 거리두기 완화 후 변경 될 수 있음

## ◆ 12월 도서관 만들기 프로그램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신청 기간: 12월 1일 ~ 12월 7일

만드는 날: 12월 21일(수) 방과 후 / 도서관

선착순 12명 마감!

예쁜 생화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의 향기를 느껴봅시다

\* 시간이 많은 학생, 약속을 잘 지키는 학생!

※신청 후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2월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읽기

기간: 12월 19일 ~ 12월 30일(매주 월, 금 4번)

시간: 월, 금 방과후 도서관!

인원: 사전 신청자 20명

방과후에 도서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책읽고  
열심히 참여해서 겨울 선물도 받아 가세요~!

### 뉴스 키워드 맞추기!

기간: 12월 19일 ~ 12월 30일 매일매일!

이번에도 돌아온 뉴스 키워드 맞추기!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도장을 드립니다~

받은 도장으로 도서관 문방구에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어요!

## ◆ 도서부 창작 겨울 시

눈

11112 양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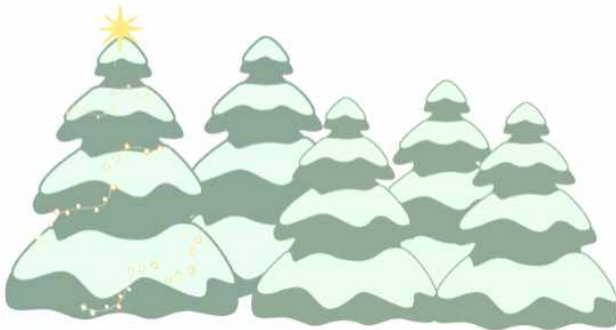
함박눈이 온 듯 행복하다가  
눈보라처럼 싸늘해지다가  
진눈깨비처럼 여러 감정이 뒤섞여오다가  
도둑눈 같이 기쁜 듯 슬픈 듯 나도 잘  
모른다

그래도 첫눈처럼 매일매일이 설렌다

찬바람

20202 김가인

찬바람 불어온다.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수많은 봐왔을 많은 사람들처럼  
내 곁을 스쳐지나간다.  
찬바람 불어온다.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다 읽은 책을 내려놓듯  
여운을 남기며 사라진다.



## ◆ 독서 후기



###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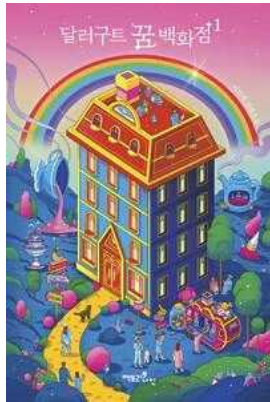
이치조 미사키 / 모모

30826 임지유

줄거리: 주인공인 와타야 이즈미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했다. 이즈미의 친구, 히노 마오리는 매일 일기를 쓰며 생활했는데 남자친구 가미야 도루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즈미에게 마오리의 일기에서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워달라고 부탁한 후 다음날 심장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가미야 도루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와 달리 모든 기억을 안고 살게 된 이즈미는 트라우마를 갖

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게 된다.

느낀점: 주인공이 자신의 친구의 일기에서 가미야 도루의 흔적을 지운 후, 오히려 더욱 마오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것 같고, 혼자만 기억하는 아픔에 시달렸을 주인공이 굉장히 안쓰러웠다. 친구의 애인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친구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만큼 죄책감도 컸을 것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트라우마로 인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도 커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주인공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주인공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한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선 조금 부럽기도 했다.



### <달라구트 꿈 백화점>

이미에 / 팩토리나인

담당하고 있는 1층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페니는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꼭 자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꼭 자든, 여기 이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위 문장은 주인공인 페니의 대사 중 일부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특히 학생들은 학업으로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시더군요. 하지만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아름답고 인상깊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꿈 백화점의 손님이 되었을지도요.

먼저 이 책의 줄거리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잠들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꿈을 파는 꿈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페니는 이 백화점의 취직을 하게 됩니다. 꿈 백화점에는 페니 외에도 각 층의 매니저들이 있는데 페니는 각 층을 견학하면 자신이 일할 층을 고르게 됩니다. 각 층은 층마다 파는 꿈에 종류도 다르고 매니저들의 성격도 가지각색이었지만 페니는 백화점의 최고참인 웨더라는 매니저가



### <지킬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아르볼

11230 조수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함과 악함이 함께 존재한다. 그것을 잘 표현한 책이 <지킬박사와 하이드>이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9세기 말 영국에서 발표한 작품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고결한 신사 지킬이 실험을 통해 하이드라는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낸 후 차츰 이상하게 변해 가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다.

지킬은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밤에는 술과 여자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지킬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서 악한 본성을 분리해내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하이드라는 악의 본성을 만들어냈다. 하이드는 기형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혐오감과 두려움을 주는 외모를 가졌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녔다. 처음에 지킬은 언젠는 자신의 원하면 하이드를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의 본성이 악행을 통해 세력이 더욱 커져 걸잡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지킬은 자살을 선택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마음속에 늘 선과 함께 악이 존재한다. 악한 본성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겉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세력을 키워 선함이 잡아먹히지 않게 늘 조심해야한다.





<무제>

21217 심예은

선예는 그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샀다. 그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샀다. 그가 좋아하는 장식을 샀다. 포장도 그가 좋아하던 색으로 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는 금방 방 한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 사 이도 서먹해졌는데 선물을 주고 싶다며 불러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선예가 주지 않을 선물을 준비한 그는 선예의 친구, 지희였다. 최근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해졌다. 그 이유는 그저 선예와 지희가 다른 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멀어지니 몇 주 정도는 애절한 느낌이 더 강했다면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은 어색한 분위기일 뿐이었다. 그날 학교가 끝난 후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어색해진 건 말할 것도 아니었고. 그 일은 저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다.

노트에 지희를 생각하며 그린 낙서가 가득하다. 선예는 노트에서 손을 떼고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는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초침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며 선생님께서 해주신 영화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다른 애들도 선예와 같은 마음인지 저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좋을 텐데." 지희는 입술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무심코 중얼거린 말을 누가 들었을까 주변을 슬쩍 훑어보았으나 애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컸던 건지 선예가 있는 곳을 보는 사람을 없는 듯했다. 눈을 느릿하게 깜빡이며 숨을 크게 쉬었다. 여름은 여름인지 후덥지근하고 텅텅한 공기였다. 선예는 책상 위로 엎어졌다. 그나마 시원한 책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분침은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종례가 끝나고 선예는 멍하니 길을 걸어가다 지희를 마주쳤다. 무슨 일인지 지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인사하고는 카페로 발을 옮겼다.

"진짜 오랜만이다, 선예 너랑 헤어진 지 거의 4개월째 아냐?" 지희가 음료수를 시키며 말했다.

"그러게, 와 벌써 7월이네?"

선예의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애매한 적막이 감돌았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음료수가 나왔다. 음료가 나오자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아, 너 시험은 잘 봤어? 난 그럭저럭이거든. 제일 못 본 점수는 89점? 이렇게 나왔어."

"시험..." 선예의 말을 들은 지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번에 보니까 너희 부모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던데. 부럽다, 진짜." 선예는 마냥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신경 많이 쓰거든?" 지희의 얼굴은 잔뜩 찡그려져 있었다.

"왜 그래, 아니,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이야." 신예의 얼굴에도 약간의 주름이 생겨났다.

"니나 그렇겠지, 나한테는 별건데 뭐 어찌라고!" 지희의 고함에 카페의 이목이 쏠렸다. 생각보다 큰 소리를 냈던 건지 지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됐어, 야. 나중에 얘기하자." 신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니 신예는 지희에게 모질게 말한 것이 미안해졌다. 그렇다고 지금 카페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에는 싫었다. 신예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에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짜증을 낼 만한 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험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넘겼다.

그렇게 헤어진 지 어언 이틀째. 신예는 손에 들린 책을 덮었다. 화해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선물을 주며 화해해보려는 시도는 처참히 무산되었다. 애초에 그가 냈다 선물을 건네주고 화해하자는 말을 할 용기가 없을뿐더러 이틀 동안 지희는 선예를 보면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이다. 내일, 금요일에도 실패하면 월요일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서먹해질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리고 있는 걸까.

"와, 내 꼴 왜 이러지? 짝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경을 쓰질 않았는데." 선예는 책상에 놓인 거울을 보고 웃음을 터트렸다.

"할 수 있다, 김선예!" 주말드라마의 당차고 씩씩한 여주인공처럼 하늘을 향해 외쳤다. 생각보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서 놀라웠다.

"망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지희는 의자에 기대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선예에게 짜증까지 내버렸는데, 정말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멍청한 이지희. 왜 니가 공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선예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렀다.

지희도 카페를 나오고서 생각이 많아졌다. 자꾸 선예에게 짜증을 냈던 게 마음에 걸려서 학교에서 선예를 만나도 계속 피해 다녔다. 사과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더 힘든 건 걱정하는 날 보는 엄마와 아빠의 반응이었다. 둘 다 공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신경이나 쓴다고 날 타박했다. 할머니랑 이모, 삼촌들은 다 날 아껴서 야단치는 거라 했는데 나는 느끼질 못하겠다.

"금요일엔 진짜 얘기해 봐야 할 텐데." 침대에 누워 멍하니 중얼거렸다.

"선예가 제발 내일은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 지희는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아 깍지를 껴다.

이렇게 서먹해질 줄 알았으면 피하지 말걸.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걸어주길 바라는 건 너무한가.

드디어 날이 밝았다. 긴장해서 그런지 괜히 어제보다 피곤한 것 같았다. 아직 마음의 준비를 다 못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수업이 끝나있었다. 아, 집에서 선물 안 가져왔다...! 이걸 왜 지금에서야 깨달았는지. 선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기운이 쭉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던 순간, 지희가 선예의 앞을 지나갔다. 선예는 다급히 편의점에서 지희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두 개 집어 계산했다. 가지고 나와서 선예는 지희를 다시 찾았다. 지희는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아서 선예는 지희에게 달려갔다.

"야, 이지희. 우리 얘기 좀 하자." 선예가 지희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다.

"뭐. 이번엔 또 무슨 시빈데?" 지희가 선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그... 야,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해." 선예는 지희의 손에 아이스크림을 쥐어주었다.

"어, 어어... 나, 나도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해." 지희도 머뭇거리다 말했다.

걱정했던 것보다 사과는 쉬웠다. 이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어렵다고 머뭇거렸는지, 이게 일주일이나 걸릴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왔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리며 웃었다.

"야, 화해했으니까 더 쌓아두기 없다?"

"당연하지, 너도 뒤끝 부리기 없다."

둘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떨어진 지 겨우 2주 밖에 안 되었지만, 말할게 많았는지 헤어질 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는 계속됐다.

다음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